

BRIEF

발행인 | 김영진 편집위원 | 류유선·이유라 발행일 | 2023. 11. 3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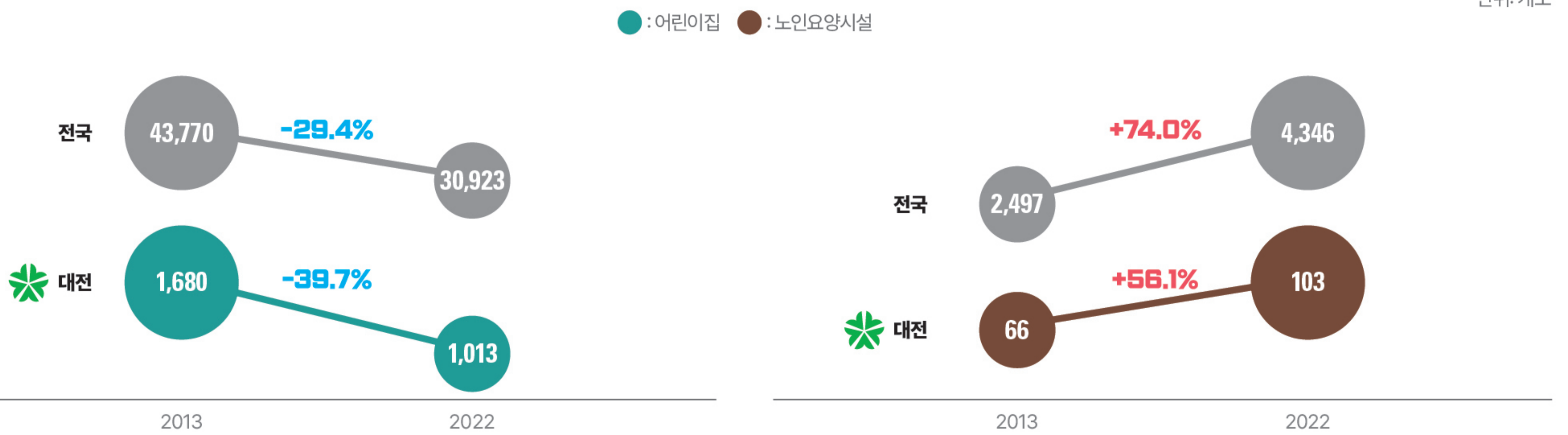
줄어드는 어린이집,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 저출산·고령화 시대, 돌봄 인프라의 변화를 살펴보다

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수는 2022년 30,923개소로 10년 전과 비교해 30% 가까이 감소했다.
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2,497개소에서 2022년 4,346개소로 74% 증가했다.
이번 호에서는 생애과정의 양극단에 놓인 영유아기와 노년기를 위한 돌봄과 교육, 돌봄과 의료를 제공하는 돌봄시설에 주목했다.
대전지역 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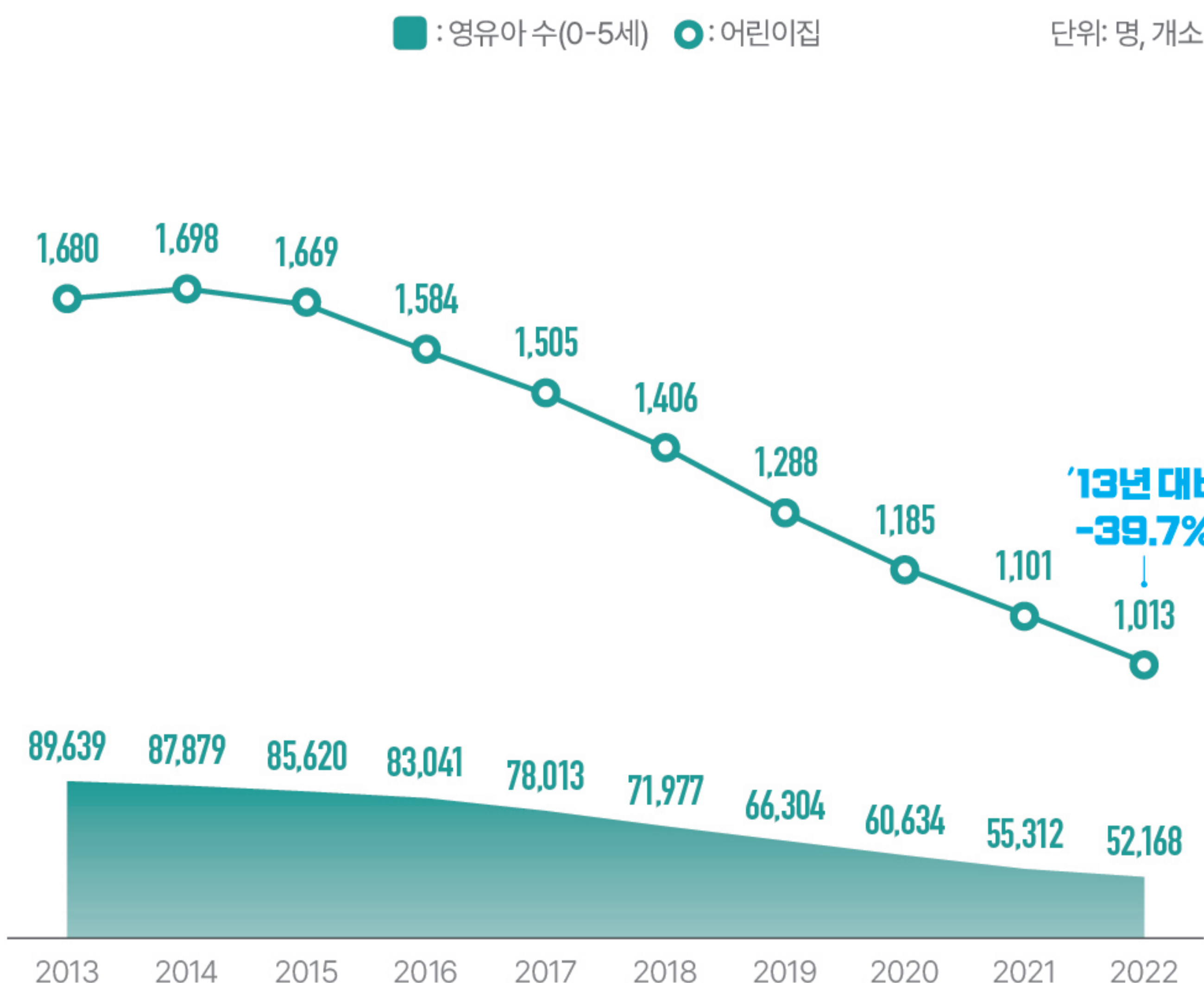
10년 새 대전 어린이집 39.7% 줄고, 노인요양시설 56.1% 늘어

저출생·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와 돌봄시설의 변화는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다. 지난 10년간 대전지역 내 어린이집은 2013년 1,680개소에서 2014년 1,698개소로 소폭 늘었다.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었고, 2022년 1,013개소로 39.7% 감소했다.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. 2022년 103개소로 10년 전(66개소)과 비교해 56.1% 증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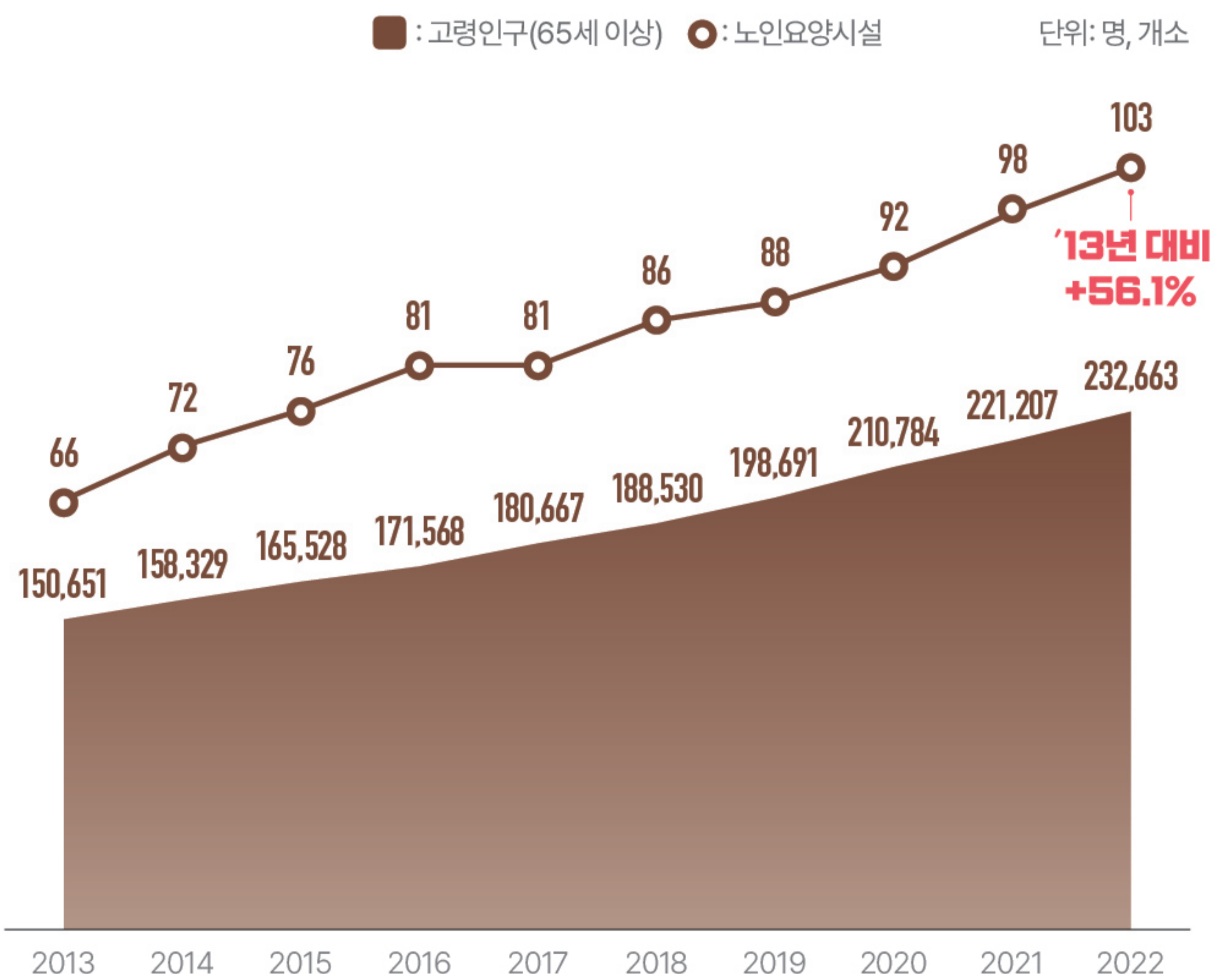
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현황(2013 vs 2022)



대전 영유아 및 어린이집, 현황(2013-2022)



대전 고령인구 및 노인요양시설 현황(2013-202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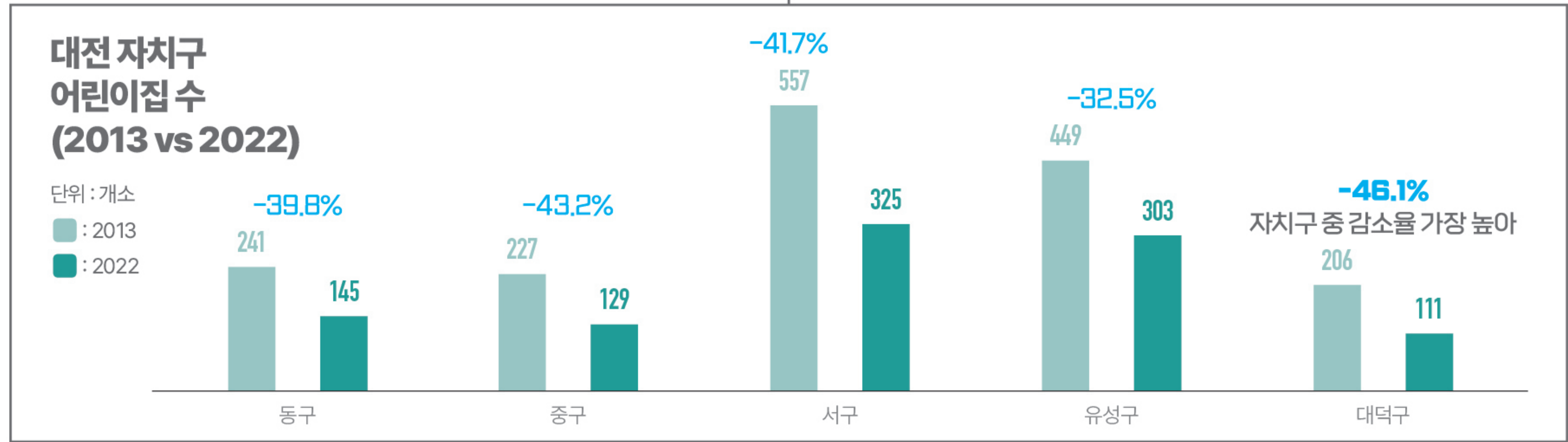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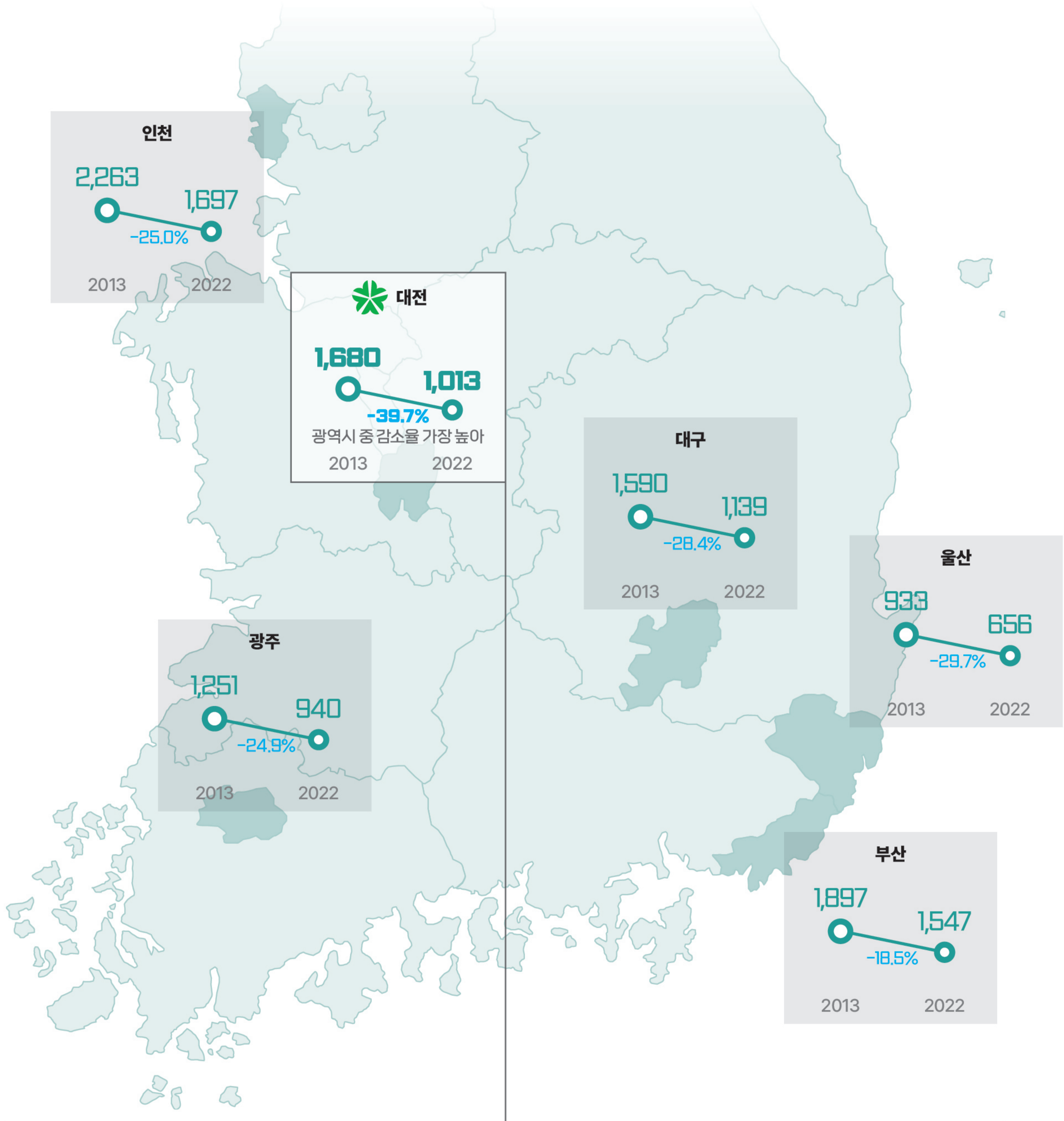
■ 매년 12월 말 기준
 ■ 노인요양시설: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·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(노인복지법 제31조)
 ■ 출처: 보건복지부, 『보육통계』; 보건복지부, 『노인복지시설 현황』; 통계청, 『주민등록인구현황』

대전 어린이집 감소세, 광역시 가운데 가장 두드러져

6대 광역시 가운데 2013년과 비교해 어린이집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(-39.7%)으로 나타났다. 이어서 울산(-29.7%), 대구(-28.4%), 인천(-25.0%), 광주(-24.9%), 부산(-18.5%) 순으로 감소폭이 크다. 대전시 5개 자치구 모두에서 어린이집 수는 줄었다. 대덕구('13년 206개소→'22년 111개소)는 10년 전보다 46.1% 낮아지면서,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.

6대 광역시 어린이집 수(2013 vs 2022)

단위: 개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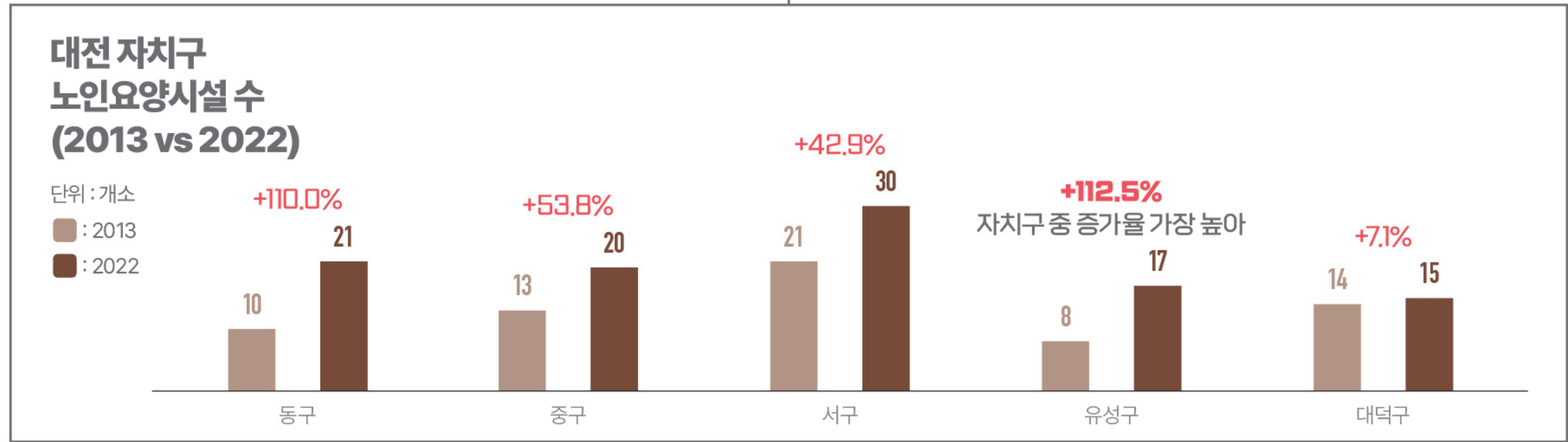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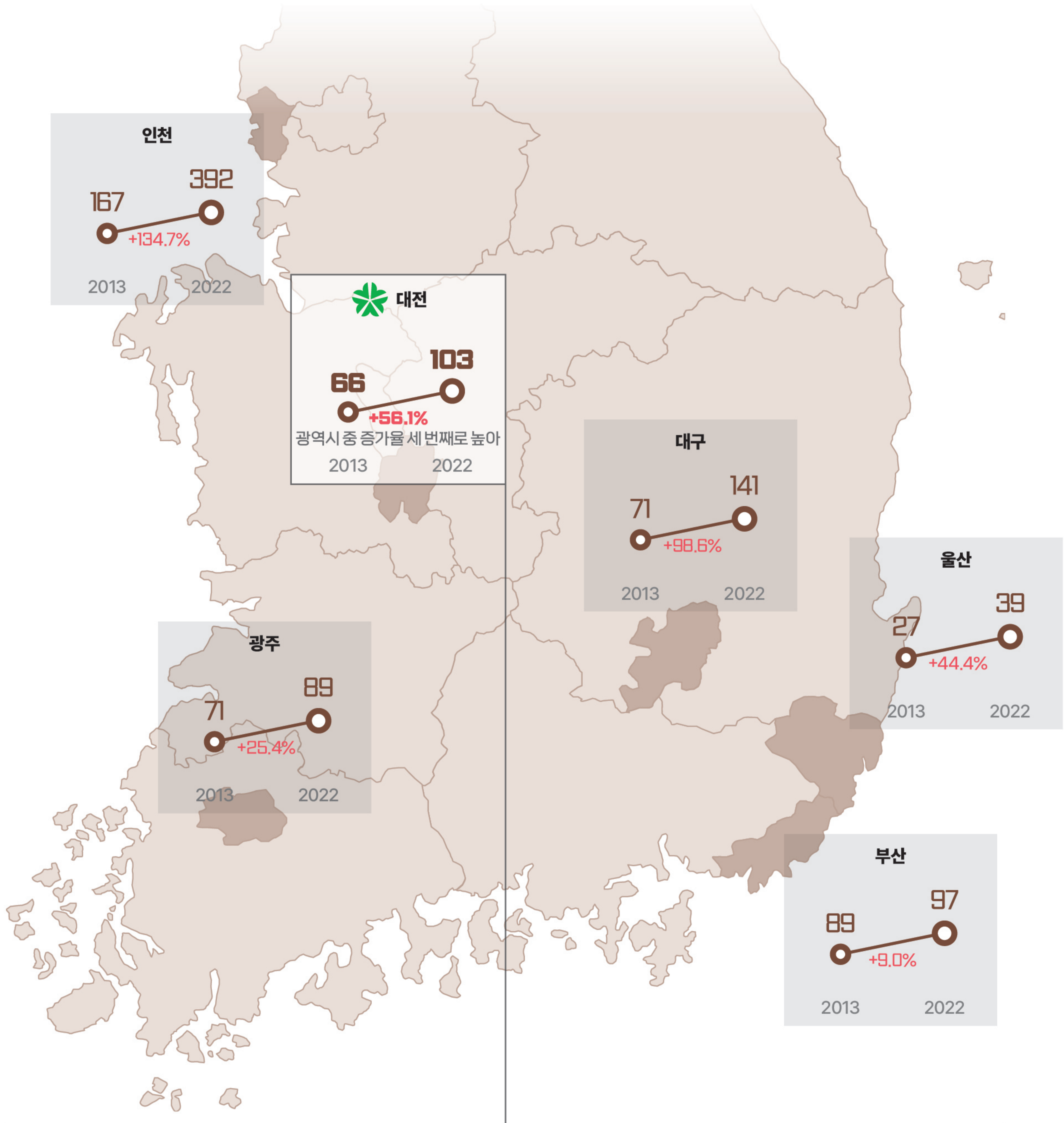
출처: 보건복지부, 『보육통계』

대전 노인요양시설 증가폭, 광역시 중 세 번째로 커

2013년 대비 대전의 노인요양시설 수('13년 66개소→'22년 103개소)는 인천(+134.7%), 대구(+98.6%) 다음 세 번째(+56.1%)로 큰 폭의 증가세다. 한편 부산(+9.0%)은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. 10년 전과 비교해 대전의 모든 자치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은 늘어났으며,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유성구('13년 8개소→'22년 17개소, +112.5%)로 나타났다.

6대 광역시 노인요양시설 수(2013 vs 2022)

단위: 개소



출처: 보건복지부, 『노인복지시설 현황』

젠더 콜로키움 # 환경 # 지역 여성 # 생태주의 # 탈성장

알면 the 이로운 젠더x환경x지역

2023년 제2회(통합 27회) 젠더 콜로키움

젠더와 환경, 지역을 주제로 생태주의와 탈성장, 그리고 지역여성들 간 미세한 관계들을 젠더관점으로 짚어내고, 청중과 함께 '젠더로 그린(Green)'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.

기후위기와 생태주의 "재거주" 정치

김현미_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

지역, 여성, 생태적 전환

박이은실_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'탱자' 전담교수

사회 | 정혜용_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

일시 | 2023년 12월 14일(목) 오후 1시 30분

장소 | 커먼즈필드대전, '모두의 공터'



접수기한 | 12월 8일(금)까지

접수방법 | QR코드 스캔 신청 또는 E-mail 신청

*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*선정도서 | 『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』, 『월경의 정치학』 (랜덤 제공, 저자 친필 사인도 받을 기회!)

*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자 40명에게 발표자 선정도서 제공 예정입니다.

문의 |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

E-mail. yunheeoh0617@dsi.re.kr

TEL. 042)530-3550



#성인지정책포럼 #여성리더십 #공감 #공정 #나임윤경 #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

2023년 제3회 성인지 포럼

일류 도시 대전, Build Up! '여성리더십' 편

한국 사회 지금, 여기서의 리더십

일시 | 2023년 12월 15일(금) 오전 10시

장소 | 커먼즈필드대전, '모두의 공터'

여성주의 리더십: 일상, 그 정치적인 것에 성실한

발표자

나임윤경_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,
전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장

발표자 소개

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 논문으로는 <반페미니즘 안정화 시대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> <한국 여자대학교의 존재 이유: 남녀공학의 대안 혹은 경쟁자> <여성 연대를 향한 성인교육학적 시론: 여성지도자들의 명예 남성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방안> 등이 있고, 저서로는 <공정감각> <페미니즘, 리더십을 디자인하다> <엄마도 아프다: 이시대의 엄마 노릇> 등이 있다.

환영사

· 김영진_대전세종연구원장

좌장

· 전현주_여성 커뮤니티 '단비' 대표

지정토론(개나다순)

- 김나영_대전주부모니터봉사단 회장
- 김명주_대전여민회 이사/충남대학교 여성젠더학과 주임교수
- 김이연심_모두 같이 일구는 새로운 언론 '뉴스피치' 편집국장
- 임정규_충북여성재단 사무처장
- 정영미_대전여성단체협의회 회장
- 정혜원_대전YWCA 회장
- 정현주_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센터장
- 홍만희_세종여성플라자 대표

접수기한 | 12월 10일(일)까지

접수방법 |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또는 E-mail 신청

*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*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자 20명에게 발표자 저서 『공정감각』 제공 예정입니다.

문의 |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

E-mail. sgnow@dsi.re.kr

TEL. 042)530-3548

